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방부



‘알아야 도둑잡도 한다.’는 속담이 있듯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교육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표어는 우리네 교육열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상팔자다.’ 혹은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의 종이다.’ 등 때로 그 얹어 불러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넘어서 경계하는 속담도 꽤 있다. 아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알 것을 제대로 가려 알자는 이런 뜻의 말이야말로 정보화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한다.

정보가 한 개인이나 사회변동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 한다. 국어사전은 정보란 낱말을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실제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석하고 정리한 지식이나 그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는 내가 앞서가기 위해 상대방에 대해 아는 일이며 무엇을 미리 헤아려 짐작하거나 그 중 어떤 것을 가려 뽑기 위한 판단의 결정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예측하고 선택해야 하

는 순간 그 성찰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로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내게 꼭 필요한 정보를 결정적으로 해방 놓는 그런 정보를 우리는 잡음정보라 일컫는다.

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이 유용하고 그 쓰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재빨리 알아내는 정보 마인드를 유연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유익정보라면 잡음정보는 오히려 그 축수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유익정보도 그것이 너무 넘칠 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감당하기 힘든 그 정보에 완전히 함몰되어 생각의 갈고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정보의 홍수, 정보의 공해가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그 무한량의 정보 온라인화

에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완전히 기가 죽었다. 무섭게 진화하면서 오직 빠른 기능만을 필요로 하는 첨단 기기 앞에서 사람들의 사고력은 점점 위축되거나 황폐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는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 누구보다 먼저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에 쫓겨 허겁지겁 마구잡이로 주워들으면서 그것이 모두 자기 것이 안 착각하게 된다. 특히 속도는 생각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남들을 따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남들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자기 생각,

우리 아이들을 잡음정보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어른들을 필요로 한다. 나이 많은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잡음인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아직 판단력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야말로 정보의 홍수, 그 잡음정보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아이 기죽이지 않겠다고 값비싼 휴대폰을 손에 들려주고 몇 시간이고 인터넷 앞에 죽치고 있는 열빠진 아이를 천재 낳다고 자랑하는 어른들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어른들이 나설 때다.

정말 필요한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상흔이 깔릴거라고 있는 게임 위주의 인터넷 사용은 만약 중독보다 더 나쁘다.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아이들의 창의력과 올바른 생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백해무익한 잡음정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종이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언제 봐도 아름답다. 그 나이에 벌써 자기만의 생각 찾기, 그런 마음의 여유로 자연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찌 대견하지 않겠는가.

(소설가·강원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노예로 키울 것인가

자기 인생을 깔고 깔아버리게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 어린이들의 인터넷 사용이나 그 속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남들이 아는 것, 가진 것을 그와 똑같이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남들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아직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마음의 안정, 그 여유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어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제대로 된 정보화 사회는 어떻게 하면

시설

‘동절기 고용안정’ 서민 생계대책 세워라

올 겨울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면서 동절기 고용안정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시행됐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들이 연말을 앞두고 종료된다.

지난 10월 말까지 공공 부문에서만 78만3천여명이 채용됐다. 그러나 예산이 소진되고 계약기간도 만료되면서 공공근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일용직도 줄어들고 겨울철에는 구인 기업이 거의 없어 수십만명이 일시에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사회적 기업에서 일해왔던 700여명도 무더기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사회적 기업을 승인했던 노동부가 매출 기준에 의해 재심사를 받도록 갑자기 시행지침을 변경한 때문이다.

공공부문 고용난은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공공 부문의

일자리 사업이 올해 80만명에서 55만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공공 부문마저 일자리가 줄어들 경우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복지 등 다른 분야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광주지역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무더기 해고 사태에 직면한 것도 노동부 관련 예산이 40%나 삭감된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근로는 민간부문 고용시장에 접근하기 힘든 소외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근로의욕이 있는 소외계층의 생존 수단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가계빚 증가세 너무 가파르다

9월 말 현재 가계 빚이 7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712조8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5조원(2.2%) 증가했다. 가구당 4천213만원, 국민 1인당 1천462만원씩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 빚이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가계 빚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이 같은 가계빚의 급증은 은행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성효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9월 이후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데 일부 은행이 대출채권을 유통화한 영향으로 증가폭이 2분기 8조2천억원에서 3분기 4조7천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2분기의 2조9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커졌

다. 예금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수요가 비은행으로 이동한 것이다. 고용감소에도 소득증가세가 더딘 상황에서 가계빚이 늘어나면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어렵사리 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가계빚이 증가하면 이자비용이 늘고 이는 민간소비 위축과 생산감소-고용둔화-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잇달 경기 낙관론에 고무돼 일부만 출구전략을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성급한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개연성에 유념해야 한다. 상황능력 이상으로 과도한 빚을 진 가계도 금리가 더 뛰기 전에 채무를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은 10월부터 DTI 규제가 2금융권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낙관한 하지 말고 가계 빚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박정환

30대 초반의 P씨는 날마다 늘어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뾰루지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아이를 낳은 뒤부터는 더더욱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 이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과 팩을 꾸준히 해도 늘 만족스럽지 않다.

참다못한 P씨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다. ‘여드름’. 계속 반문하는 그녀에게 의사는 ‘여드름’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상태를 조절한다.

만약 여드름으로 인해 얼굴 색이 많이 붉어진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를 적용해 볼 수 있다. 붉은 혈색소에만 반응하는 혈관 레이저는 피부의 다른 조직에는 손상이 없이 혈관에만 주로 작용하여 붉은 흉반을 없애는 물론 여드름의 근원인 피지선에도 영향을 주어 피지 분비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여드름 재발도 줄일 수 있다.

여드름의 재발이 심하고 염증성 여드름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스킨 스텝링이나 여드름 관리로는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바나시 절연침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다. 특수하게 고안된 절연침을 이용해 여드름의 원흉인 피지선을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심한 여드름의 경우에도 1~2회의 시술로도 90% 이상의 재발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술 시간은 30분 내외로 짧고, 시술 당일부터 세안과 화장이 가능하다.

여드름이 자주 재발하고 반복되는 경우 모공이 커지거나 여드름 흉터가 보기 싫게 발생해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여드름 레이저와 함께 MTS 롤러, 서브시전을 병행하는 복합 피부 재생술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존의 흉터 치료와 차별화되는 점으로는 효과가 빨라서 한번 치료한 후에도 효과인자가 가능하고 3~5회 이내의 반복 시술시 7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치료 후 붉어짐도 2~3일 이내로 짧고, 세안이나 화장도 당일부터 가능하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적게 주는 것도 장점이다.

〈아이비 피부과 원장〉

뾰루지라 우기지 말자, 30대의 여드름

여드름은 10대와 20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30대에 들어 명 중 한두 명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한 여드름이 생긴다. 30대 여드름의 발생에는 호르몬 변화보다는 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전신 상태의 악화가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주요인이다.

30대에는 여드름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염증이 심하고 커다란 여드름이 몸 상태에 따라 주로 입 주변이나 턱 주변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반수 이상의 여성은 생리 1~2주 전에 여드름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한다. 간혹 10대에는 여드름이 없다가 30대에 갑자기 여드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새로 튀어나오는 여드름을 자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피로하지 않고 몸 상태를 항상 최적으로 가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주로 염증을 줄이는 치료에 중점을 두는데, 초기 염증이 심할 때는 먹는 약을 복용하면서 스킨 스텝링과 여드름 진정관리를 병행해 피부의

기고

우제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시에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시립미술관 등을 비롯한 공공립 기관,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일곡 갤러리, 북구향토음식박물관, 자미 갤러리 등이 있다. 또 시립미술관으로는 의재 미술관, 우제길 미술관, 무등현대 미술관, 국운 미술관 등이 활동 중이다.

전남대와 조선대에서는 각각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며, 공동 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상업화랑들과 더불어 롯데·신세계 백화점 등에서 관리하는 화랑을 포함하면 대략 서른 군데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민들이 미술 전시장을 찾는 횟수는 연간 0.2회라고 한다. 즉 5년에 한번 꼴로 미술 전시를 보러가는 셈이다.

명색이 예향이자 문화중심도시일 뿐, 여전히 시민과 미술 사이의 간극은 넓다. 일반인들이 쉽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 거리는 계속 멀어질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예술의 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이 곳, 혹은 조금은 여유 있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장소를 선택해 거리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흔히 무심결에 지나쳐버리는 건물 귀퉁이에 자리한 조각상이 아니라 시민의 동선과 눈높이에 맞춰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형형색색의 거리 미술관 말이다.

연중 어느 때이고 미술관·화랑에서

추천하는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도난의 우려가 있는 소장작들은 복제품으로 전시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더불어 전시관에는 작품의 정보와 함께 그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관, 화랑의 정보도 제공한다. 물론 야간에는 조명을 충분히 이용해 감상이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이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비싸고 기괴한 가로등보다 더욱 그럴싸한 간접 조명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물론 작량은 예산이 뒤따라 것이고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더불어 이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소비자들을 끊임없이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문화도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술을 향유하고 직접 전시관을 찾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된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할 만한 문제제기가 아닐까?

〈우제길미술관 관장〉

거리에서 향유하는 예술

관·미술관을 운영하며, 공동 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상업화랑들과 더불어 롯데·신세계 백화점 등에서 관리하는 화랑을 포함하면 대략 서른 군데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민들이 미술 전시장을 찾는 횟수는 연간 0.2회라고 한다. 즉 5년에 한번 꼴로 미술 전시를 보러가는 셈이다.

명색이 예향이자 문화중심도시일 뿐, 여전히 시민과 미술 사이의 간극은 넓다. 일반인들이 쉽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 거리는 계속 멀어질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예술의 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이 곳, 혹은 조금은 여유 있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장소를 선택해 거리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흔히 무심결에 지나쳐버리는 건물 귀퉁이에 자리한 조각상이 아니라 시민의 동선과 눈높이에 맞춰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형형색색의 거리 미술관 말이다.

연중 어느 때이고 미술관·화랑에서

추천하는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도난의 우려가 있는 소장작들은 복제품으로 전시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더불어 전시관에는 작품의 정보와 함께 그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관, 화랑의 정보도 제공한다. 물론 야간에는 조명을 충분히 이용해 감상이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이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비싸고 기괴한 가로등보다 더욱 그럴싸한 간접 조명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물론 작량은 예산이 뒤따라 것이고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더불어 이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소비자들을 끊임없이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문화도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술을 향유하고 직접 전시관을 찾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된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할 만한 문제제기가 아닐까?

〈우제길미술관 관장〉

피부관리 내세운 화장품 강매 주의를

얼마 전 모 대학교 앞을 지나던 중 한 화장품 업소가 판촉행사를 나와 소매를 잡아 끌었다. 공짜 마사지도 해주고 화장품 무료 사용 서비스는 물론, 나중에 효과가 좋으면 직접 방문해서 피부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도와준다는 설명이었다.

얼짱과 꽃미남이 판치는 세상에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이용해 공짜로 얼굴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이벤트로 고객을 유혹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을 보고 놀랐다.

이러한 공짜 얼굴마사지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하여 찾아가면 마사지를 미끼로 몇

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화장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특유의 판매 수단에 애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경우가 적잖게 보였다.

거리 행사를 이용해서 무료 마사지를 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첨 행사도 하지 않고 고객정보를 고개를 현혹하는 형태의 상술이 이어져 개인정보차원에서든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 스스로 이러한 공짜 마사지를 이용한 고가의 화장품 강요를 당하는 불법성 슬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이선화·광주시 서구 마루동

無等鼓

심리학자들은 핑크색이 최수들한테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유명 대학 풋볼팀들은 경쟁팀의 라커룸을 핑크색으로 칠한다고 한다. 남성 호르몬이 넘쳐나는 선수들의 혈기를 진정시켜 전투의지를 꺾으려는 속셈에서다.

전설적인 미식축구 감독인 보 스펀베클러(Bo Schembechler)는 상대팀 선수들이 들어닥치기 전에 코치들에게 핑크색 벽지를 바르도록 뒤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핑크는 여성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 유아용 탁발이에서 어머니 보석함, 할머니 잠옷까지 여성용품에서 핑크는 기본색이다. '핑크리본', 여성영화제 '핑크영화제' 식으로 핑크는 여성 그 자체이다.

핑크로 거대한 부를 이룬 여성 CEO도 있다. 맨손으로 세계 최고의 화장품 회사를 일군 메리 케이(Mery Kay). 그녀는 영연실적이 우수한 '화장품 외관원'(그녀들은 뷰티 컨설턴트라 불렸다)들에게 '핑크 캐딜락'을 선물했다. '신데

렐라 포샵'에 감동한 75만명의 뷰티 컨설턴트들은 무려 15억 달러의 미용제품을 전세계에 팔아 보답했다. 화장품을 팔기 전까지 그들은 마스카라보다는 걸레질에 익숙한 평범한 주부가 대부분이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성서의 골든 룰을 기업경영에 도입해 성공한 경우다. 학자들은 메리 케이의 경영기법을 '핑크 리더십'이라고 극찬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핑크는 여성의 '안전색'으로 자리매김할 조짐이다. CCTV를 설치하고 핑크색 줄을 그은 여성전용주차장, 입산부를 위한 지하철이나 버스의 핑크좌석

핑크 경제학

이 이미 등장했다.

정부가 엇그제 심야 여성전용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명 '핑크택시'다. 경제성 때문에 민간 업체들이 언제쯤 운행할지는 의문이지만, 밝길 여성들의 안전한 동반자가 될 듯했다. 여성들도 드디어 밤을 즐기게 되나보다. /김주정 경제부장 jinesw@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이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1	여론재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 1부 2200-612	체육팀 2200-663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691	(F A X 02-773-9335)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